

돌아온 '월드컵 스타' 조규성... 흥명보호 '원톱 경쟁' 후끈

'월드컵 스타' 조규성(27·미트윌란)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면서 흥명보호 최전방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조규성은 3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축구대표팀의 11월 A매치 홈 2연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이후 무려 1년 8개월 만이다.

또 2024년 7월 지휘봉을 잡은 흥명보호 감독 체제에선 첫 발탁이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깜짝 스타로 떠올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조별리그 가나와의 경기에 출전해 멀티골을 터트렸다. 비록 경기는 한국에 2-3으로 졌지만, 조규성이 남긴 임팩트는 강렬했다.

한국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경기 두 골을 넣은 것도 조규성이 최초였다.

또한 실력뿐 아니라 빼어난 외모까지 겸비해 조규성을 향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높여냈다.

월드컵에서 '벼락 스타'가 된 조규성은 2023년 K리그 1 전북 현대를 떠나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에 입단해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그는 첫 시즌 공식전 37경기에서 13골 4도움을 올리며 팀의 간판 골잡이로 자리 매김했다. 자연스럽게 유럽 빅리그 클럽의 관심이 높아졌고, 조규성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첫 시즌이 끝난 뒤 조규성은 2024년 5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치료하려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겨 복귀가 계속 미뤄졌고, 결국 2024~2025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12kg이나 빠질 정도로 조규성의 재활은 악몽 그 자체였다.



무릎 수술 후 합병증으로 2024~2025시즌 통째로 날려 올 시즌 복귀 후 소속팀에서 공식전 4골로 부활
손흥민·오현규와 다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활용 주목

소속팀에서 사라진 조규성은 대표팀에서도 멀어졌다. 흥명보호 감독 부임 이후 단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절치부심하던 조규성은 힘든 재활을 거쳐 올 시즌부터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한 시즌 공백에도 조규성은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17일 바일레와의 리그 5라운드에선 교체로 나와 미트윌란의 2-0 쐐기골에 이바지하며 부활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9월 덴마크컵 올보르BK와 경기에서 1년 4개월 만에 복귀골을 터트렸다. 골 감각을 되찾은 조규성은 이후 리그

에서 3골을 추가하며 현재 공식전 4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조규성이 장시간 비행기를 탈 몸 상태가 아니라며 호출하지 않았던 흥명보호 감독은 이번에는 직접 덴마크로 날아가 컨디션을 체크했다.

조규성은 10월26일 프레데리시아전에서 흥명보호 감독이 지켜본 가운데 풀타임을 뛰며 시즌 4호골을 터트려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조규성의 합류로 흥명보호 최전방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흥명보호 감독은 그동안 베테랑 주민규와

일본 무대에서 뛰는 오세훈(마치다)을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활용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월 A매치 때는 손흥민(LAFC), 오현규(헝크)와 함께 황희찬(울버햄튼)을 공격수로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월드컵에선 조규성과 같이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가진 공격수가 필요하다.

스피드를 활용한 손흥민, 오현규와는 다른 옵션을 대표팀에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이들과의 공존도 가능하다.

조규성이 이번 대표팀 복귀전에서 인상적인 기량을 뽐내다면, 생애 두 번째 월드컵에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노력은 모두 그 무대에서 서기 위해서다. 월드컵은 내 꿈"이라며 북중미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뉴시스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11월 8일 개최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마라톤 코스 교통통제

순천시와 주최하고 순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오는 8일, 팔마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풀(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एको촌→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습지→화포항(반환) ▲하프(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एको촌→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습지(반환)) ▲10km(팔마종합운동장→남승룡로→오천삼거리→어울림체육관→풍덕교하단(반환)) ▲5km(팔마종합운동장→생태문화교육원→잡월드(반환))로 진행되며, 7,8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달리게 된다.

대회 당일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마라톤 코스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팔마오거리에서 팔마종합운동장과 순천만국가정원 방향 진입이 금지되며, 생태문화교육원



에서 맑은물관리센터 구간은 전면 통제, 도사초등학교에서 인월삼거리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25회를 맞은 남승룡마라톤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북구, '제3회 북구청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

리그오브레전드·발로란트·스타크래프트 등 5개 종목 참가자 모집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제3회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가 생활 스포츠로 정착함에 따라 지역 내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북구가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단위 e스포츠 대회이다.

올해 대회 종목은 총 5개 종목(PC 3종목, 모바일 2종목)으로 구성됐다.

PC 3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스타크래프트 등이고 모바일 2종목은 ▲브롤스타즈 ▲포켓몬 카드게임 등이며, 재개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개최 이후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였다."며 "추워진 날씨 속에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참가자 모집이 완료되면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고 종목별 결선전은 다음 달 6일 비엔날레전시관 5관 현장 무대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대회 상금 규모는 작년 대회 대비 400만 원 늘어난 '총 1,000만 원'으로 종목별 1위부터 4위의 성적을 거둔 팀에게 북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함께 주어진다.

결선전 당일 행사장에는 '북구청장배 TCG(트레이딩 카드 게임) 대회'가 부대행사로 치러지며 ▲닌텐도 체험존 ▲e스포츠 코칭존 ▲추억의 오락실 ▲웹툰 그리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도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대회에 전국의 e스포츠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오늘날 게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전 세계 인구가 열광하는 문화이자 유망 산업으로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내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2025년 제22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제1, 2 다목적실내체육관)과 장흥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부 남녀 선수 약 1,200명이 참가하고, 관계자 등 300명을 포함해 약 1,500여 명이 강진과 장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종목인 플뢰레, 에페, 사브르 3종목 중 2종목은 강진군에서, 나머지 1종목

강진군,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 펜싱 선수권 대회

전국 1,200명 선수 참가...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기대

은 장흥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 단위 지자체가 단독 개최가 아닌 2개 군이 공동으로 개최해 큰 규모의 전국 대회를 진행하는 만큼, 지역 체육 인프라 강화와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강진군과 장흥군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

해,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강진군은 이번 펜싱 대회 개최로, 대회 기간 동안 지역 상권 및 숙박업, 식당, 관광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군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대규모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새로 발굴하고 재개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개최 이후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였다."며 "추워진 날씨 속에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대전

HAM PYEONG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